논어 4편 이인 2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古者言之不出，恥躬之不逮也。」

독음 · 자왈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옛사람은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할까 부끄러워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古 옛 고 고 / 者 놈 자

言 말씀 언 언 / 之 갈 지 / 不 아닐 불 / 出 날 출 출

恥 부끄럼 치 치 / 躬 몸 궁 궁 / 逮 미칠 체 체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